

서양에서의 유물복제의 의미와 현황

김겸

영국 Lincoln 대학

Replication : the Meaning and Techniques in Western Culture

Kim Kyum

UK Lincoln University, Korea

원작 original 이란 무엇인가

보존복원에서 어떠한 대상물이 진품이라면 그 외형이 얼마나 오리지날에 가까운가의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된다. 세계보존과학회가 1984년에 채택한 보존가와 복원가의 작업규정에 서 복원(restoration)이란 유물을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한편에선 회화에서 현재의 때를 벗겨 밝은 색상을 찾아주는 것은 현재의 감상과 흥미로움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물감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색감이 변하기 마련이므로 당시의 작가가 사용한 오리지날 색상이라고 보증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유물을 클리닝한다던지 수리된 부분을 제거, 혹은 새롭게 덧붙여가며 오리지날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추정이라는 불안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대의 銅鏡이 부식되어 본래의 반사되는 표면을 잃은 것이나 회화의 변해버린 바니쉬 표면, 직물의 염료가 변색한 것 등은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복원을 통해 오리지날의 모습을 찾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며 항상 유물이 살아온 세월의 자취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유물 복제의 의미

어떠한 유물을 가지고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복원이라는 과정은 하나밖에 없는 유물 자체를 다루는 일이므로 항상 위험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예를 든 동경의 사물을 반사 시키는 본래의 역할을 찾아주려 한다면 복제품을 만들어 본래의 쓰임새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유물은 안정화(stablization)시켜 보관하고 복제품은 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때의 복제품은 일종의 기록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유물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 라던지 안정화가 불가능할 때에 복제품에 의한 기록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안정화가 힘든 상황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보존환경을 제어하기 힘든 경우로 건축물이나 기념물 등 야외에 노출된 유물, 둘째, 안정화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로 역시 건축물과 같이 거대한 유물이나 자연환경. 셋째, 유물자체의 성질이 불안정한 것으로 플라스틱, 고무와 같은 재료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복제된 것은 건축물의 문고리 등의 오리지널과 교체되어 사용되는 예와 서서히 퇴락해가는 원작의 대용물로서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서양에서 복제의 대상으로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은 움직이는 전시물 들이다. 예로 증기기관이나 움직이는 인형 등의 동작하는 모습을 전시해 놓은 경우를 많이 보는데 움직임은 어쩔 수 없이 부품이 달아버리는 등의 퇴락을 수반하므로 복제물을 만들어 전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유물의 기록행위로서 복제는 2차원 기록 - 사진, 드로잉 등 - 과 함께 보존복원 과정의 일부로 이해되고 행하여져 오고 있다.

서양에서 복원에 대한 태도는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굳이 원작과 똑같은 재료를 찾아 사용하지 않고 작업성이나 작업 후 시작적인 효과가 더 좋은 다른 소재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 복제와 복제품에 대한 태도에서도 옛 재료나 기술을 연구하고 계승하는 것 보다는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탓에 시각적으로 더 닮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재료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복제의 사례 및 현황

1. 원작과 같은 방법으로 복제
2. Molding과 Casting을 이용한 복제
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캐닝 및 복제

¹⁾Caple. Chris, *Conservation Skills-Judgement, Method and Decision Making*, London : ROUTLEDGE(2000), p. 113.